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

예수 사랑

발행인 : 신 성 중
 편집인 : 윤 명 식
 편집국장 : 손 경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35-1
 전화 : 552-8300 FAX : 563-3932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11월 1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를 위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충현의 성도들



■ 초대의 글

참된 안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새 안식이 사라진 가정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 속에서도 미소가 사라진 여유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아닙니다. 물질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오가는 모든 사람들 표정 속에는 획일적으로 굳어져 버린 무표정한 얼굴밖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여유, 정신적

인 여유, 영혼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풍요 속에 빈곤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물질만능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우리 심령의 긴장과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만큼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정상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정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돌을 산 위에 올려 놓는 것과 같습니다. 물살이 급한 강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잠깐 쉬기만 하면 금방 산 밑 골짜기로 굴러가 버립니다. 강 하류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대인들은 이처럼 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두통, 고혈압 등의 현

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을 참된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안식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무도 모르는 고통의 짐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죄의 짐을 지고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마의 짐을 지고 신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가 임리와 근심과 걱정, 죄의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쉬의 장소, 참안식의 장소로 초대합니다.

11월 1일 어떠한 시간에도 오십시오. 저희 충현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그 시간에 참된 안식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안식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11월 1일 여러분을 우리 충현교회당에서 보기 원합니다.

1992년 10월 7일

여러분을 기다리는
목사 신 성 중

▶ 생명의 말씀 ◀

겨울을 준비합시다

선교 / 신성중 목사

역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수 많은 교훈과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교훈과 진리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혜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영어로 histor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His story, 즉 하나님의 이야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수 많은 문명이 일어났다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마치 일년에 네 계절이 번갈아 가듯이 봄에 해당하는 문명의 시작인 유아가 있고, 여름에 해당하는 문명의 번영이 있고, 가을에 해당하는 문명의 절정이 있고, 겨울에 해당하는 문명의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겨울을 준비해야 할까요?

1. 경제적 겨울인 불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를 때만 해도 한국은 마치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처럼 흥청망청했습니다. 100억불의 수출은 어깨에 힘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선진국 병에 걸려서 스스로 만족하였습니다. 힘든 일하기를 기피하고 제조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외채를 선호하고 흥청망청 분수 모르는 사치풍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 번 혼드시니 이제는 거꾸로 100억불 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슬의 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베짖이” 이야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해 겨울에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제의 겨울인 불경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열릴 때 열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있다가 절망의 밤, 실직의 밤, 환난의 밤에 오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것이지 때문입니다.

둘째로 통성할 때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햇날에 가난하면 새빨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 일하듯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2. 인생의 겨울인 노년 시기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적자 인생이 있고, 제로(Zero) 인생이 있고,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적자 인생이란 남에게 폐해만 끼치다

가 죽은 인생이며, 제로 인생이란 남에게 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는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남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생은 예외 없이 죽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저희가 사려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마25:1~13)

다는 것과 그 때가 되면 인생 보고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의 한아버지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미리 묘지를 준비하고 심지어 수레까지 만들어두셨고 계산까지 다 분배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준비를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젊어서 안타까운 것은 언제 준비해야 할 것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고 그레아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땅에 있는 동안,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배릴 것은 배리고, 가질 것은 가지는 자제를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온행에 선한 일을 많이 쌓아두고 천국 직급을 많이 쌓아 두어야 할 것입

니다. 시집갈 처녀가 김혼을 준비하듯 인생의 겨울인 죽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두려움 없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역사의 겨울인 증언과 예수님의 제자의 준비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 철학자인 오스왈도 슈팽글러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22년에 “서구의 몰락”이란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문명이란 봄(문명의 탄생), 여름(성장과 완숙), 가을(노쇠), 겨울(사망)의 네 단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역사를 문화적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역사를 네 계절로 본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 네 가지 중 초가을로 접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갈 것은 그 날짜를 정확히 짐작하여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시한부적 종말론을 추구하는 자들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여서 교회 전체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교회에서 벗어난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날에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신랑은 더디 온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몰락방식은 아주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급격히 갑니다. 그러므로 1992년에 예수님이 오겠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다가 준비하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명의 처녀 중에 어리석은 다섯 명의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 생각하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가져 못하고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4. 천국의 미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묵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역사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표징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만 겨울을 겨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와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면 반드시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착점에서 새로운 출발점인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을 위해 기쁨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겨울에 거지가 얼어 죽는 것은 새벽녘에 움크리고 잠을 잘 때라고 합니다. 깨어 있는 한 얼어 죽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며 지낸다는 말입니다.

네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보고서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리한들의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후회 없는 삶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내일입니까? 역사의 겨울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겨울이 올 때 슬퍼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은 겨울이 다가올 때 승리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으로 본 충현교회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목표로 설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1. 천국일꾼 양성을 교회의 주요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연령과 특수성에 따라 33개 부서로 세분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충현교회는 주일에 4부 예배, 와 찬양예배, 수요일에 2부 예배, 새벽기도회, 금요찬양 집회 등 각종 예배와 집회를 드린다.
3. 민족 복음화를 위해 매년 여름이면 농어촌 전도를 실시한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
5. 교회 전경
6.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북한 선교에 임하고 있다.
7. 세계를 교구로 삼고 전 세계 8개국에 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주일 영어예배와 일어예배를 개설하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복음화에도 힘씀으로써 세계 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8. 사회봉사의 산실이 될 봉사관 건축 현장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나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성품이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로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도 남편은 평소에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늘 권유해 왔다. 나는 새벽이 되면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연년생인 두 딸을 낳기까지 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내가 아들을 낳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태임에도 아이를 갖지 못해 8년 동안 마음을 졸이며 살았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한 남편은 심한 위장병과 기관지염으로 고생했으며 불면증까지 겹쳐서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보니 진실로 감사드릴 수 밖에 없다.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로서

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이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 충동과 교회를 다니는 분만 만나면 못이기는 체하며 교회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다. 그 생각을 가진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 교회 집사님을 만나 전도를 받게 되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나는 옆에 앉은 교인들을 따라 고개를 숙여 속으로 속삭여 하나님을 불러 보았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며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았다. 교회에 나가길 너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나간 지 20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도 응답을 주셨다. 나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아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10개월 동안 하

나님께서는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민우는 하나님의



엄경자 집사(제1교구)

사랑 안에서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

그 후 역삼동으로 이사를 한 우리 가정은 어느 교회에 나가서 신앙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살아갈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는 교회,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참된 주의 종들이 섬기는 교회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주시지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영이 부유하며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하라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다. 기도가 부속해서있는지, 때가 아니라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는 한 동안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민하던 끝에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로 작정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한 후 이틀째가 되던 날 "어떻게 해야 응답을 주십니까?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당시 남편은 심한 불면증으로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던 때였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은 꿈속에서 "이제 너희가 가게 되는 교회는 희망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남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했더니 우리집 현관 문에 충천교회 교패가 단단하게 붙은 환상이 보였

다고 했다. 같은 날 밤에 큰 딸과 나는 히히벌벌에 웃장하고 창문이 아주 맑고 돌벽으로 쌓은 두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교회를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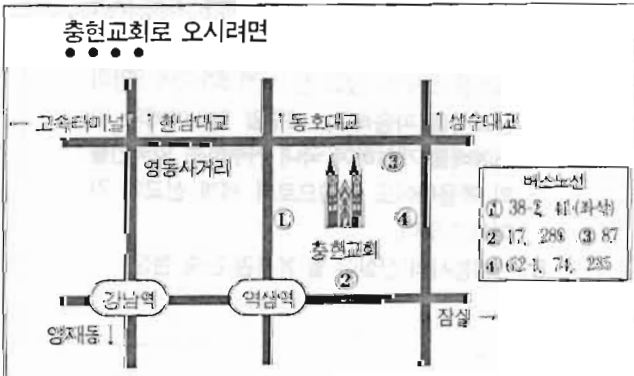
꿈에서 봤던 나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교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가족은 충천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충천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아 몸가짐도 조심하게 되고 골수 깊이 스며드는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매주 많은 은혜를 받으며 항상 주일을 기다리며 산다. 그러는 가운데 남편의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가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불면증도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이제 잠자리에 누운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단잠을 곤히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예수 사랑 큰 잔치에 꼭 오세요

11월 1일 7부 예배 시간 - 오전 7, 9, 11, 오후 1, 3, 5, 7시

충천교회는
귀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11월 1일에
'92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마련하고
귀하를 초대합니다.
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김종안 원로목사

신성종 목사

김인식 집사 (소리기회 대표)

방은미 전도사 (복음성가 가수)

박인수 교수 (서울대교수)

최 매 집사 (복음성가 가수)

전은대 전도사 (복음성가 가수)

이성애 집사 (복음성가 가수)

윤현주 집사 (천지기획 대표)